PDF 다운로드

찾아가는 한의약

지역 의료자원과의 연계로
지속 가능한 건강 돌봄의 새로운 방향 제시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황규영 과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지역 주민이 생활권 안에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의약건강돌봄사업은 한의약을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 모델을 구현하는 실험이자, 지역사회의 연대를 통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건강 돌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덕양구 건강증진과장 황규영입니다. 2023년부터 덕양구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를 맡아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찾아가는 홈스피탈'은 제가 부임 첫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당시에는 보건소 한의사를 주축으로 한 방문진료 사업이 생소했고, 올해 초에는 인력 공백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 충원과 서비스 의뢰 증가로 지금은 안정적으로 자리잡았습니다. 3년 차를 맞은 올해, 한의약건강돌봄사업으로 저희 덕양구보건소가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게 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뤄낸 성과라 개인적으로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소의 한의약건강돌봄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홈스피탈', 고양시한의사회와 협업을 통한 경로당 방문진료 프로그램인 '어르신 건강주치의' 그리고 계절·주제별로 여는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강좌'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홈스피탈'은 보건소 소속 한의사가 직접 방문진료를 시행합니다. 지역한의사회 또는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방식 보다는 보건소에서 통합돌봄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를 지역사회와 연계해 병원의 의뢰를 받아 최소 8주간 한의 방문진료를 진행하는 경우와, 행정복지센터의 의뢰를 받아 한의 방문 방문진료를 진행하는 경우로 운영됩니다.

'어르신 건강주치의'는 관내 경로당에 고양시한의사회 한의사가 방문하여 진료를 하고, 보건소 인력이 함께 방문해 건강증진 교육을 병행하는 상호 협력 구조로 진행됩니다. 2023년 MOU를 체결한 고양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10명과 보건소 소속 한의사 1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사업으로, 경로당 방문 시 보건소 인력 6명(한의사·방문간호사·운동처방사·담당자 등)과 동 행정복지센터 인력 2명이 팀을 꾸려 초기상담부터 종료 그리고 만족도 조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방문진료는 경로당마다 평균 5회 이상 진행됩니다. 그리고 매년 1회 이상은 고양시한의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의약 건강강좌'는 노년층 대상 시민 건강강좌와 중년층 대상 '한마음 갱년기 한방교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 대상 '한방 튼튼 교실'로 세분화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지역 주민들이 관심사와 필요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주민분들이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건강주치의

건강증진교육

다른 지자체와 구분되는, 덕양구보건소만의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촘촘한 연계망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고양시한의사회와의 협력은 기본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비롯한 관내 6개 종합병원, 21개 동 행정복지센터, 약사회·보청기 업체 등 지역자원을 촘촘히 이어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을 퇴원한 환자 중 집에서 회복기를 가져야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복지가 한 호흡으로 받쳐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 내 다양한 의료 자원을 덕양구보건소를 중심으로 촘촘히 엮어 지역 의료복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직종과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긴밀한 협력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한의 의료기관만 해도 한방병원 4곳, 한의원 213곳이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의료 자원들이 함께하고 있는 만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참여 인원이 함께하는 사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총 31회의 사례 회의를 개최했는데, 지난해에도 총 33회나 열었습니다. 이런 회의를 통해서 기관이나 단체별 입장을 공유하고, 더 나은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관계자 모두가 동의하고 적극 협력해 주시기 때문에 서로간의 긴밀한 연계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홈스피탈 사례회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서비스의 실제 효과나 반응은 어떠했나요?

'찾아가는 홈스피탈' 경우에는 2024년에 101명을 대상으로 824회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이미 106명, 772회로 인원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참여 인원이 늘어난 것은 협력 기관의 의뢰 건수가 늘어났음을 의미하며, 이는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만족도와 효과가 뒷받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찾아가는 홈스피탈' 만족도 조사에서도 서비스 주기와 내용에 대한 만족도, 건강관리 유효성, 자가관리 도움 등에서 평균 92%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찾아가는 홈스피탈 한의진료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을 운영하며 가장 보람을 느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좌측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낙상으로 우측 슬관절 골절 수술까지 받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거동이 거의 불가능했고 우울감 또한 심한 상태였어요. 찾아가는 홈스피탈 팀이 방문해 한의 진료와 운동 지도를 이어갔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방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해 몸과 마음이 함께 치료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조기구를 지원해 스스로 움직이실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마지막 방문일에 그 어르신은 스스로 서서 걷는 모습을 보여주실 만큼 회복되셨습니다. 지역사회의 돌봄은 단순히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 지지와 일상으로 회복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사례였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사업이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한의약건강돌봄사업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인가요?

올해 사업 평가를 토대로 운영 체계를 더 단단히 다지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연계한 역량 강화 교육처럼 참여 인력이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루틴을 이어가 서비스 품질과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대상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과 같이 노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관리를 실현하도록 청년층과 중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그동안 참여 기회가 부족했기에,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는 다른 지자체 담당자나 보건기관에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이라는 과제는 현실적으로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의 의료기관과의 MOU 체결로 제도적·환경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의료자원과 행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을 정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각자의 지역적 상황을 잘 파악해 지역 의료자원과의 연계부터 시작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